

철강금속



철강비철금속 방민진

Tel. 02)368-6179 / mj.bang@eugenefn.com

종목별 투자 매력도

| | 12M fwd PER(배) | 12M fwd PBR(배) |
|-------|----------------|----------------|
| POSCO | 8.2 | 0.47 |
| 고려이연 | 12.1 | 1.14 |
| 현대제철 | 11.3 | 0.34 |
| 풍산 | 11.0 | 0.50 |

전주비 주요 가격 변동

| | 가격 | 증감률(%) |
|---------|-------|--------|
| 중국 HRC | 4,006 | -0.9 |
| 중국 철근 | 4,325 | -0.6 |
| 철광석 현물 | 97.2 | +3.3 |
| 원료탄 | 209.8 | +2.6 |
| LME 전기동 | 6,126 | -1.8 |
| LME 아연 | 2,630 | -5.1 |
| 금 현물 | 1,286 | +0.5 |

전고점을 상회한 철광석 가격

■ Vale, 철광석 생산 완전 정상화에 2~3년 소요

올해 철광석 가격 급등을 주도한 것은 연초 광미 댐 붕괴 사고로 연산 9천만톤(전세계 철광석 물동량의 6% 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브라질 Vale사임. 이는 자발적 조치뿐 아니라 브라질 당국의 제재에 의한 부분도 있음. 최근 Vale는 1Q19 1.6십억불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이는 4.5십억불의 댐 사고 관련 비용을 반영함. 게다가 철광석 생산은 72.9백만톤으로 -27.8%qoq를 기록함.

Vale는 최대 광산인 Brucutu(연산 3천만톤)의 조업이 현재 연산 1천만톤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2천만톤 규모의 조업 재개도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나머지 3천만톤 규모 역시 위험도가 낮아(dry processing) 12개월 이내 법원 명령 해제를 기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3천만톤(wet processing, 광미 댐 사용 필요) 규모 생산능력 회복에는 2~3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힘.

철광석 현물 가격(62% Fe)은 완전 재개될 것이라 기대했던 Vale의 Brucutu 광산 조업이 법원 명령에 의해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부터 재차 모멘텀을 회복하여 지난해 97.24달러/톤(+3.3%wow, +33.7%YTD)으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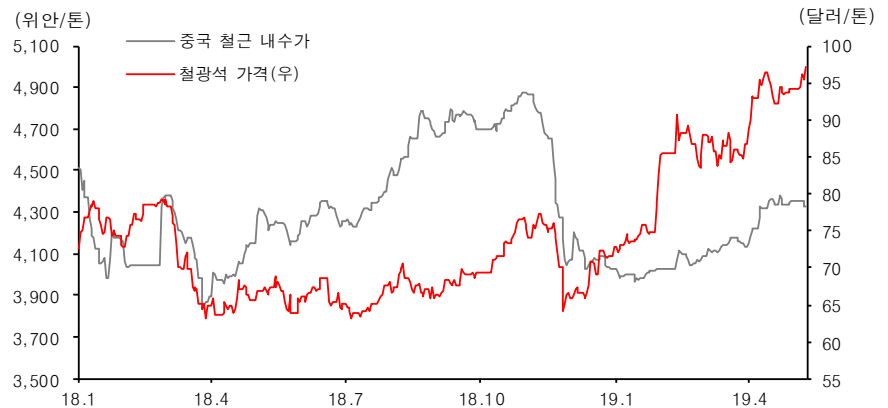
■ 美,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부과 관세율 25%로 인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 10일 예고대로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함.

그럼에도 10일 LME 전기동 가격은 +0.4%, 아연 +0.8%, 니켈 +1.5% 등으로 강보합으로 마무리함. 아직 끝나지 않은 양국의 무역협상이 결국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함. 다만 비철금속 가격은 4월 말 이후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조정세를 보여줌.

한편 이번 관세율 인상 대상 품목에는 다수의 전기동 제품(빌렛, 선재, 케이블, 판재, 튜브, 강관 등)과 아연 제품(파우더, 형강, 판재, 호일, 강관 등), 그리고 철강 제품(형강, 튜브, 강관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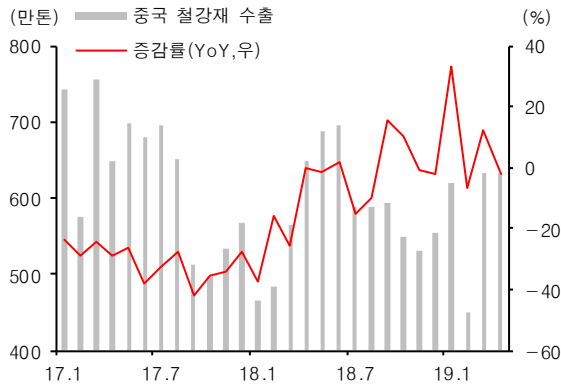
철광석 및 중국 철강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지난주 주요 이슈

중국 철강재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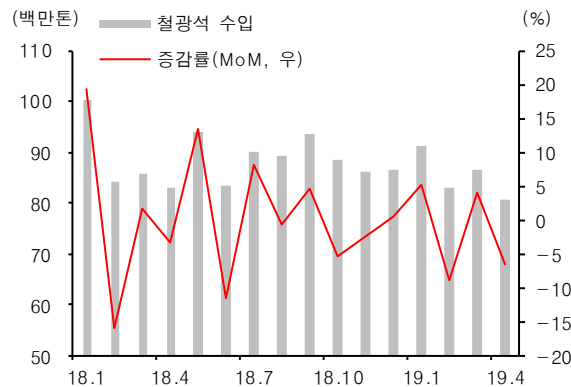


자료: 중국세관, 유진투자증권

■ 中, 4월 철강재 수출 -2.3%yoy, 누계 +8.0%

- 4월 철강재 수출은 633만톤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4월 누계 수출은 2,335만톤으로 전년동기비 8.0% 증가함.
- 미-중 무역분쟁 타격이 심화되던 지난해 말 중국은 수출 기업을 보조하기 위해 수출 환급세율을 인상(기존 세율 13~15% - > 16% 등)한 바 있음.
-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내수 가격 급락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확대된 상황. 다만 1월 중순 이후 가격이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4월부터 수출 모멘텀은 다소 억체

중국 철광석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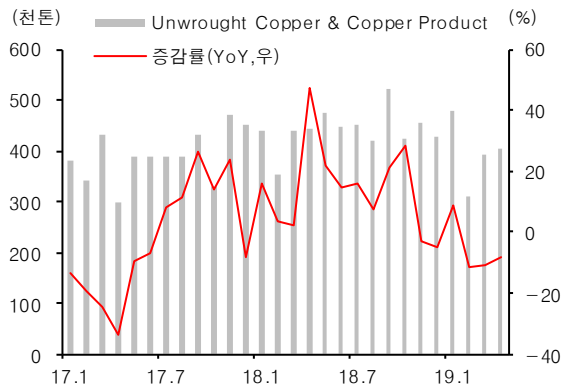


자료: 중국세관, 유진투자증권

■ 中, 4월 철광석 수입 -2.6%yoy, 누계 -3.3%

- 중국 철광석 수입량은 80.8백만톤으로 전월비 -6.5%를 기록함. 반면 중국 조강생산량은 3월 누계로 9.9%yoy 성장함.
- Vale 생산차질과 호주 사이클론 여파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철광석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신규 구매에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중국 철광석 항구재고는 4월 들어 재차 급감하면서 지난해 말 저점을 하향 돌파함.

중국 동 수입 추이



자료: 중국세관, 유진투자증권

■ 中, 4월 동 수입 -8.4%yoy, 누계 -5.2%

- 중국의 4월 동 수입량은 연초부터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이는 3월 이후 급등한 SHFE 재고와 함께 수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옴.
- 다만 여기에는 중국 최대 동 수입업체인 Tewoo의 재무적 어려움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텐진 정부 소유의 Tewoo는 3월 말 채권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으며 약 10만톤 규모 동 재고를 유동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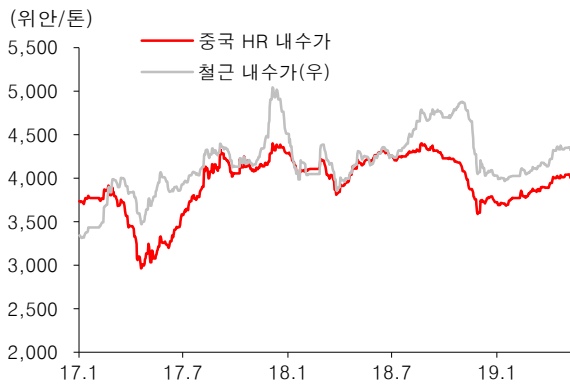


주요 철강금속 가격

| | | Recent | 1W | 1M | %1W | %1M | %YTD |
|--------------------------|-------------|--------|--------|--------|------|-------|-------|
| 철강재 중국내수 (위안/톤) | 열연(HR) | 4,006 | 4,041 | 4,003 | -0.9 | 0.1 | 7.5 |
| | 냉연(CR) | 4,329 | 4,401 | 4,473 | -1.6 | -3.2 | 1.9 |
| | 철근 | 4,325 | 4,351 | 4,320 | -0.6 | 0.1 | 7.3 |
| | 후판 | 4,090 | 4,103 | 4,100 | -0.3 | -0.2 | 7.5 |
| 철강 원재료 (달러/톤) | 철광석 | 97.2 | 94.2 | 94.6 | 3.3 | 2.8 | 33.7 |
| | 원료탄 | 209.8 | 204.4 | 198.7 | 2.6 | 5.6 | 3.4 |
| | 철스크랩 | 349 | 349 | 287 | 0.0 | 21.5 | 30.6 |
| LME 3M (달러/톤) | 전기동(Copper) | 6,126 | 6,236 | 6,484 | -1.8 | -5.5 | -11.8 |
| | 아연(Zinc) | 2,630 | 2,771 | 2,928 | -5.1 | -10.2 | -14.7 |
| | 연(Lead) | 1,822 | 1,900 | 1,925 | -4.1 | -5.4 | -22.3 |
| | 니켈 | 11,921 | 12,179 | 13,022 | -2.1 | -8.5 | -15.2 |
| | 알루미늄 | 1,808 | 1,799 | 1,863 | 0.5 | -3.0 | -21.0 |
| Precious Spot (달러/온스) | 금 | 1,286 | 1,279 | 1,290 | 0.5 | -0.3 | -2.4 |
| | 은 | 14.8 | 14.9 | 15.0 | -0.8 | -1.3 | -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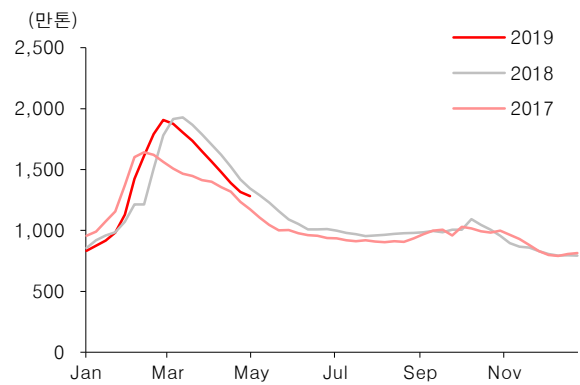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 중국 철강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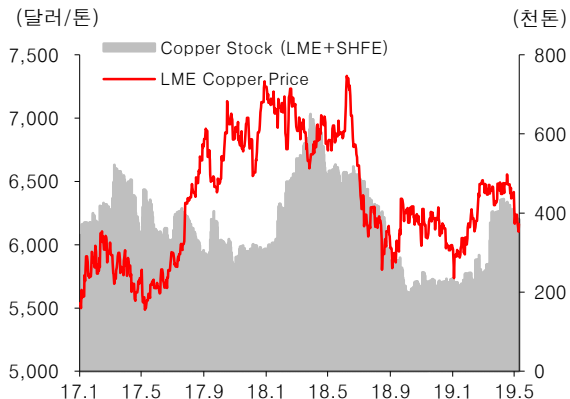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중국 철강재 유통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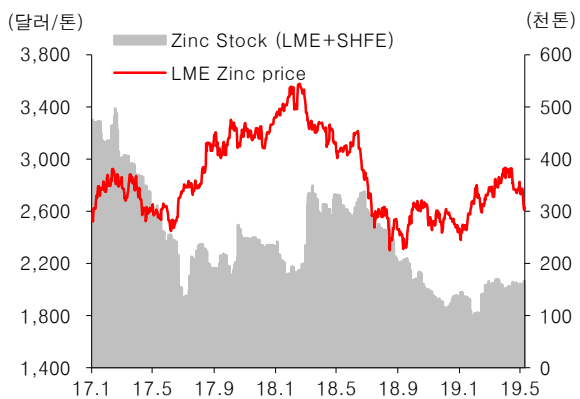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전기동 가격 및 재고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아연 가격 및 재고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 |
|------------------|----------------------------|-----|
| • STRONG BUY(매수)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 0% |
| • BUY(매수)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87% |
| • HOLD(중립)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13% |
| • REDUCE(매도)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 0% |

(2019.03.31 기준)